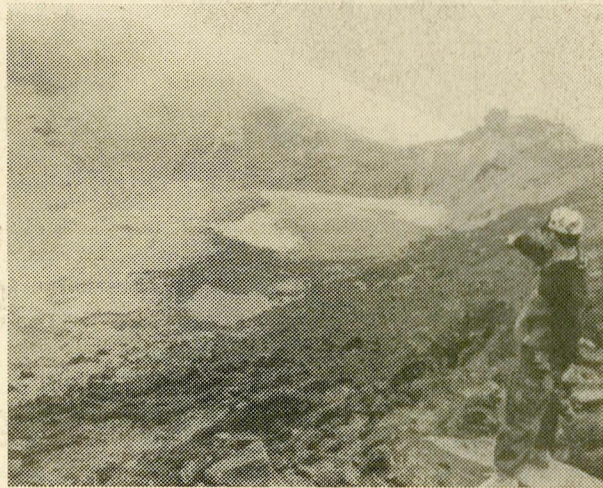


“심야 변태영업 갈수록 저능화”

취객들만 골라 호객행위 베베이용업소 미리연락

문지기 배치 단속원과 숨바꼭질

최근들어 유흥업소의 심야 변태영업수법이 갈수록 저능화하고 있어 달곡의 이들 심야 변태영업소



바다나리나 변태영업소
산 변태영업이 9월 이후 계속되니 가늠이로 10월을
어 잠정의 바깥에 나갔었다.

들은 호객꾼(일명 베베)을 고용, 자정 이후 거리의 비를 거리는 술집들을 찾아내 무전호출이나 핸드폰으로 미리 연락해 업소로 안내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저능화되고 있다.
또 일부 업소에서 아예 출입구에 문지기를 배치, 경찰등의 단속을 피해 은밀히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상습적으로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들은 대부분 출입문을 이중 삼중으로 설치해 놓고 있어 화재발생시 대형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이나 잠원동, 강남구역삼동이나 신사동, 동대문구장안동 청담동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밤 11시경이면 호객꾼들 수십명이 거리로 나와 취객들에게 접근, 심야영업장소로 유인하고 있다.
업소들 가운데 료살롱이나 카페 등이 핸드폰 무선

호출을 통해 손님들을 안내하는 저능화한 단속을 피하는가 하면 일부 거리에 노출된 대중음식점의 점장커튼을 치고 문 앞에 문지기를 배치, 단속원이 나타나면 안에서 아예 불을 꺼버리는 등 단속원과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다.

특히 방배동 카페골목의 경우 최근들어 새벽 4시 무렵부터 문을 여는 료카페 형태의 업소가 등장, 영업을 끝내고 돌아가는 유령업소의 여종업원들과 20대 고객들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호 포스트

개업 동아일보사수원관고영업소(소장 韓光洙) 수원시인계동수원프라자오피스텔 607호(033-1) 9673373 FAX(033-31) 966486

한양대정기이사회 21일 오후 7시 인터컨티넨탈호텔 8585 재경동아고체육대회 24일 오전 9시 반 제1서강대경영대학원가족치마당 24일 오후 2시